

# 설 가정예배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1장(통21)	다같이
기도		가족 중
성경봉독	에베소서 4:1~4(신약169)	인도자
설교	하나 됨을 지키는 성도	인도자
찬송	218장(통369)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폐회 - 가족과 나눔의 시간을 가집시다.

## 하나 됨을 지키는 성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죄수'(갇힌 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존경받는 사도가 아닌 죄수로서 권한다고 말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 하더라도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인종에 따라, 신분에 따라, 성별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에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엡3:6)한 후에 이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힘써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입니다. 교회의 하나 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실천할 때에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쉽게 다투며 분열하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 시켜서는 안되고, 그러한 권리 또한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분열의 시작입니다. 가정에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정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마12:50)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하나 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